



성도의 벗 3
1971

커틀랜드를 다시 방문하다... 3 페이지 참조

Deane Johnson



영감의 메시지

휴 비이 부라운
집이사도 정원희

인간을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짐을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에 지었는지를 알 수 있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오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서 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에겐 대단히 돈도 많고 유식한 동료 장교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세력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었으며 부족한 것은 없는 사람이면서 종종 나와 종교에 관하여(왜냐하면 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할 때면 “인생에서 무엇이든 갖고 싶은 것은 돈이면 모두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지나 그와 나는 다른 두 장교와 함께 포위된 프랑스의 아라시로 가라는 특명을 받았읍니다. 도시는 모두 철수시켰으므로 도착 직후 우리는 사람이란 것은 전연 없으리라고 생각하였읍니다. 성당쪽으로 걸어가 안에 들어 갔을 때 우리는 제단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여인을 발견하였읍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잠시 멈추었습니다. 잠시후 여인은 일어나 연약한 어깨 위에 목도리를 걸치고는 복도로 휘청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우리 일행에서 프랑스어에 능숙한 한 사람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어깨를 펴고 턱을 움추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뇨, 걱정이라곤 없습니다. 성당에 들어 올 때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제단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떠한 걱정이었습니까?”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다섯째 아들이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전보를 받았읍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전사한 뒤 아들들이 하나씩 전사하였읍니다. 하지만” 다시 여인은 어깨를 떠면서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걱정을 잊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은 후에도 계속한다는 것을 믿으며 저는 언젠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떠난 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눈물을 흘렸으며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말하던 동료 장교는 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당신과 나는 전쟁터에서 남자들이 높이 칭찬받을 용기와 용맹을 떨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읍니다만 이 여인이 가진 신앙과 확신과 용기에 비길만한 것은 일찌기 내 생애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만일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주겠습니다.”라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인간의 비극은 물리적인 힘의 무의미한 운동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인생이란 볼테르(잔 후란소아 아루에 볼테르, 프랑스 작가 및 철학자, 1694-1778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짓궂은 농담”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이 계획자와 스승이 되는 수련의 학교인 것입니다.

제 7 권 제 3 호 순 서 1971년 3월 호

- 권두언 : 교회 프로그램의 활용 조셉 필딩 스미스1
- 커틀랜드를 다시 방문하다 지 데일 웨이트, 얼 엠 몰튼슨.....3
- 미대륙에 상륙한 고대인 존 리어7
- 페니키아 사람들에 의한 말일성도의 새로운 관심 로스 티 크리스첸슨.....11
- 어린이 성도의 벗 : 손가락 인형 마리아 마이너15
- 벵의 표시 로사리 더블류 도스.....16
-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젊은이가 오늘날의 문제에 대비하는데 있어 교회가 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관리 감독의 말씀
- 존 에이치 반덴버그.....19
- 정말로 저를 사랑하셨다면.....21
- 악에 관한 문제 윌리엄 이 베렛22
- 발전하고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병원 베넬 더블류 베렛27
- 선교부장 메시지 : 네단계 서 현보.....30
- 내외 소식.....31
- 진리의 말씀 : 행복의 그날까지 겐디라 리차드 엘 이반스.....표4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3월 1일
통권 제68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 (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 아름답고 그림같은 풍경의 마을인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는 미국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커틀랜드는 말일성도 역사에서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도시이다. 1831-1837년 사이 파란 많은 6년간을 하나님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회복된 교회의 본부를 정하고 있었던 곳이며 이곳에서 예언자는 현재 교리와 성약에 실린 35개의 계시를 받았으며 이중 한 계시에서 성도들은 주님의 신권을 건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교성 95 : 8, 11-17)

3년 동안 힘써 일한 뒤 1836년 3월 27일 일요일 신전이 봉납되었다. 이날에 천사들이 나타나 회중들과 같이 찬양하였으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어떤이는 예언하며 어떤이는 방언을 말하며 어떤이는 시련을 보는 축복을 받았다. 그후 일주일의 지난 뒤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지시하기 위해 신전을 방문하셨는데 이때 구약에 나오는 세 예언자 곧 모세, 일라이어스와 엘리야가 오셔서 지시를 하셨다. 이 당시 “주님의 집”이 예배와 가르침과 기쁜 교회를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집합소였음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달의 표지는 브리감 영 대학 영화과 주입 교수인 다글라스 존슨이 그려 주었다. 관계 기사는 본문 “커틀랜드를 다시 방문하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교회 프로그램의 활용

대관장 조셉 필딩 스미스



●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교회 조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의로움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길을 따라 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고결한 생을 살 것이며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해의 왕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충만한 보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조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전 12:28)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사도와 예언자를 으뜸으로 하는 신권 조직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신권회를 보조하고 협력하기 위해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조직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경륜의 시대마다 교회 회원이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보조하기 위해서 충족시켜 주어야 할 특별한 요구라든가 해결할 문제라든가 협조가 받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 2:12 참조)

따라서 우리는 신권회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사회 조건의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부의 일부로서 교회 회원의 생애를 온전히 하며 확실히 이들에게 현세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며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행하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브리감 영 대관장이 상호 향상 회를 창립하셨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영 대관장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절제하며, 기본 원리를 따르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청 하셨습니다. 젊은이를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의 가슴에 말일의 위대한 사업에 대한 진리와 방대함에 관하여 개별적인 간증을 심어주고 그들이 가진 재능을 발전시켜 주는 것을 여러분의 주된 사업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영적인 축복은 신권의 조직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생애 있어서 더할나위 없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집에서 신권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뜰한 보살핌과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고결한 영향력도 많으며 신앙을 두텁게 하고 간증을 발전시켜 주는 일도 많으며, 우리 마음 속에 의로움에 대해 갈망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이 모두는 주신 재능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개개인은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일을 행할 주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상 생활의 경험에서 시험을 받기 위해 지구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 있는 목적은 우리 자신이 계명을 지켜 세상을 이기는가를 보기 위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모두 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빛과 안내자가 되어야 하며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이며 이들을 빛과 진리 안으로 인도하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 조직은 사실상 가정과 개인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 신권 지도자와 감독은 자기들이 수고를 기울이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임명되었으며 보조 조직은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업을 보조하고 협조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이같은 프로그램을 전부 활용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이와 성장하는 세대에게 지도자의 권고와 지시를 받아 들여 마음을 다해 의로움을 추구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교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이 할 바를 다 행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크게 번영케 하셔서 우리의 수고에 성공이 따르게 하시고, 이로써 지상에서는 평화와 기쁨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만방에 있는 시온의 젊은이와 온 세상 사람에게 저는 이 말일의 위대한 사업이 진실하고 신성하다는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말일에 최초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그의 도구로 삼으셔서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을 만인이 확실히 알게 하십시오.

이와같은 간증은 성령의 지시와 낮고 조용한 작은 음성의 속삭임에 의해 우리 영혼에 깃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며, 요셉 스미스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진리인 주의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도록 전능자의 부름을 받으신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야말로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며, 모든 남자가 주의 거룩한 신권을 받아 영생으로 인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문자 그대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저는 성신의 권세로써 알고 있습니다.

간증의 영이 말일성도의 가슴마다 풍성이 넘쳐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간증하는 자가 되며, 다 함께 아버지의 왕국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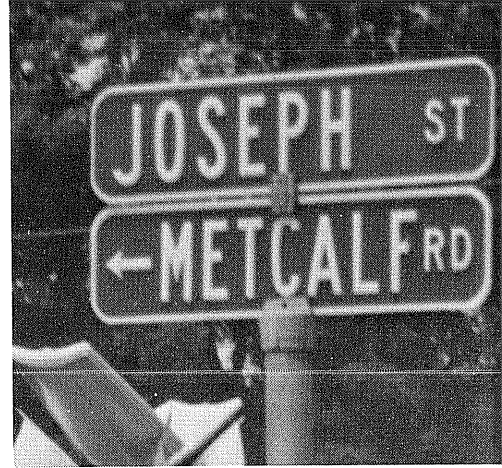
커틀랜드를 다시 방문하다

지 데일 웨이트 박사
얼 엠 몰튼슨 박사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이르는 꼬불꼬불한 강 길을 따라 아름다운 샹그린 강 계곡을 지나며 북쪽에 있는 많은 오하이오 주 주민은 여행을 하고 있다. 계곡 밑에서 마지막 봉우리 쪽으로 접근해 가는 여행자라면 이곳에서는 “옛날의 물몬 신전”으로서 알려진 웅장한 건물을 보게 된다. 이 건물은 1830년대에 커틀랜드 시내와 주변에 정착하고 살았던 약 4천명의 성도에 대한 기념비로서 세워져 있다. 이때로부터 135년이 지난 지금은 옛날 이 도시에 대한 유적만 조금 남았을 뿐이다. 토지는 클리블랜드의 도시 주민이 급속도로 차지 하고 있으며 이 도시의 산업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다음에 실리는 사진은 이 역사적인 도시에 관하여 오늘날 잔존하는 유적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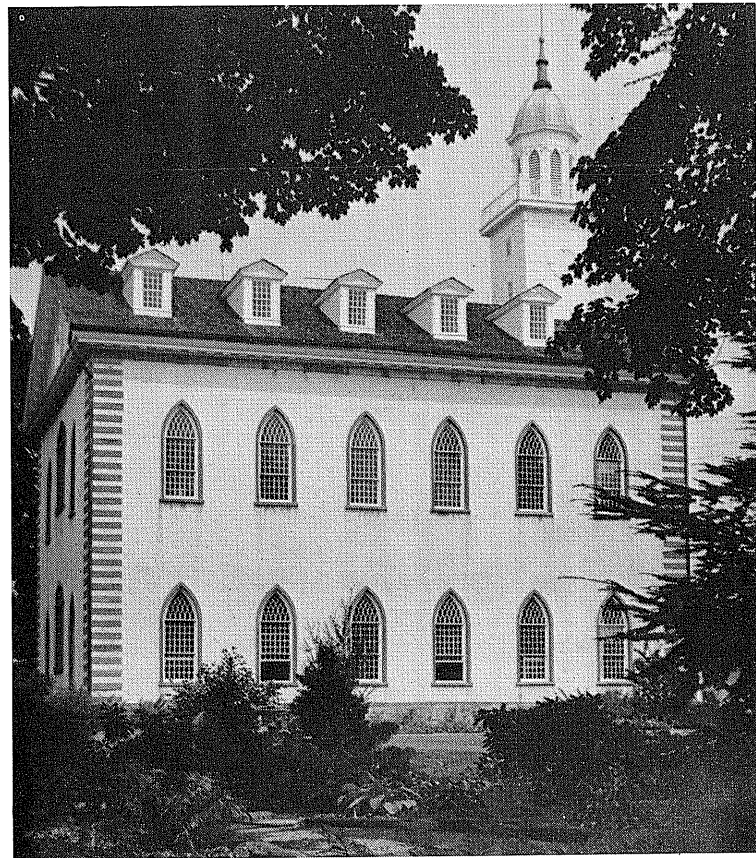
지 데일 웨이트 박사, 피츠버그(펜실베이니아 주) 제 2와드 주일학교 교사이며 현재 클리블랜드 연방 준비 은행 피츠버그 지점 차장임.

얼 엠 몰튼슨 박사, 클리블랜드(오하이오주)스테인크 청남 상향회 회장이며 지금 클리블랜드 주립 대학 화학과 부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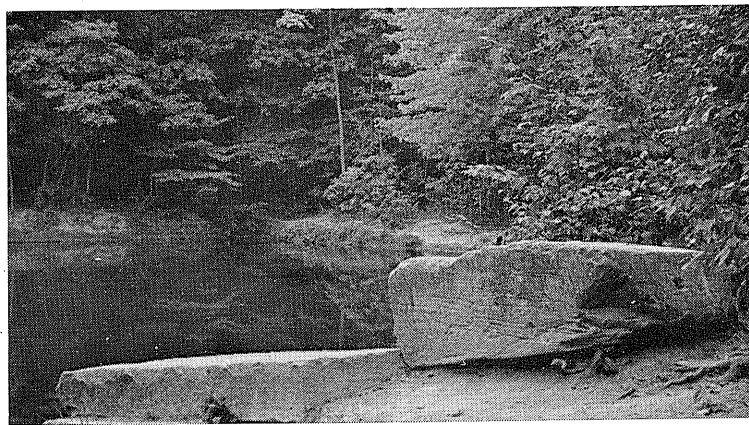
↑신전 가에 인접한 요셉로. 1833년 커틀랜드를 확장하기 위해 요셉 스미스가 설계한 “시온의 도시” 계획에 대해서 침묵으로 증거해 준다.

↑뉴웰 케이 위트니 씨와 앨저논 시드니 길버트 씨의 상점. 1831년 요셉 스미스와 부인 에마가 커틀랜드에 도착한 뒤 곧 이 건물의 이층에서(현재 일부 복구되었음) 수주일 동안 이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요셉 스미스의 도착에 관한 흥미 있는 이야기는 교회사 제1권 146페이지에 있다.



대리 의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 건축하였으며 현재의 신전과 마찬가지로 석조로 지은 뒤 정교한 사기와 수정의 작은 조각이 섞여 건물에 윤이 나게 하는 벽토로 칠을 하였다. 1836년 신전이 봉납된 직후 이 신전은 구세주와 모세, 일라이어스 그리고 엘리야가 방문함으로써 여러번 하늘 사자의 시현을 받는 은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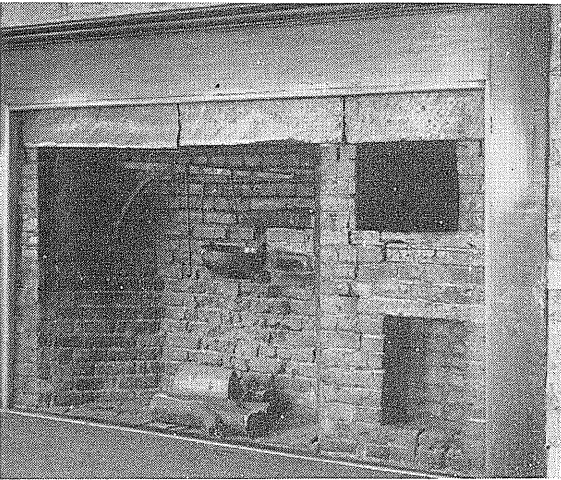
신전에 사용할 돌을 채석하던 석회암 채석장→로 신전 남쪽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암석을 깎아낸 부분과 채석 흔적을 아직도 볼 수 있다. 이 채석장에서 예언자, 대관장단, 대제사와 장로가 일했다.





←지금은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이곳은 존슨 씨의 농가에서 90미터쯤 떨어져 있는데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1832년 3월 24일 밤 폭도들에 의해 잔인한 습격을 받았던 장소이다. 두 분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추격을 참고 이겼다.

↓신전 북쪽 작은 묘지에 있는 하이람 스미스의 부인 제루샤 바야든 스미스와 예언자의 조모 메어리 비이 스미스의 묘비. 바로 이 가까이 1831년 생후 단 3시간 밖에 살지 못했던 예언자의 쌍둥이 아들과 딸이 묻혀 있다.



↑존슨 씨의 옥내 벽난로. 스미스 가족을 위해 난방, 난로, 오븐으로서 쓰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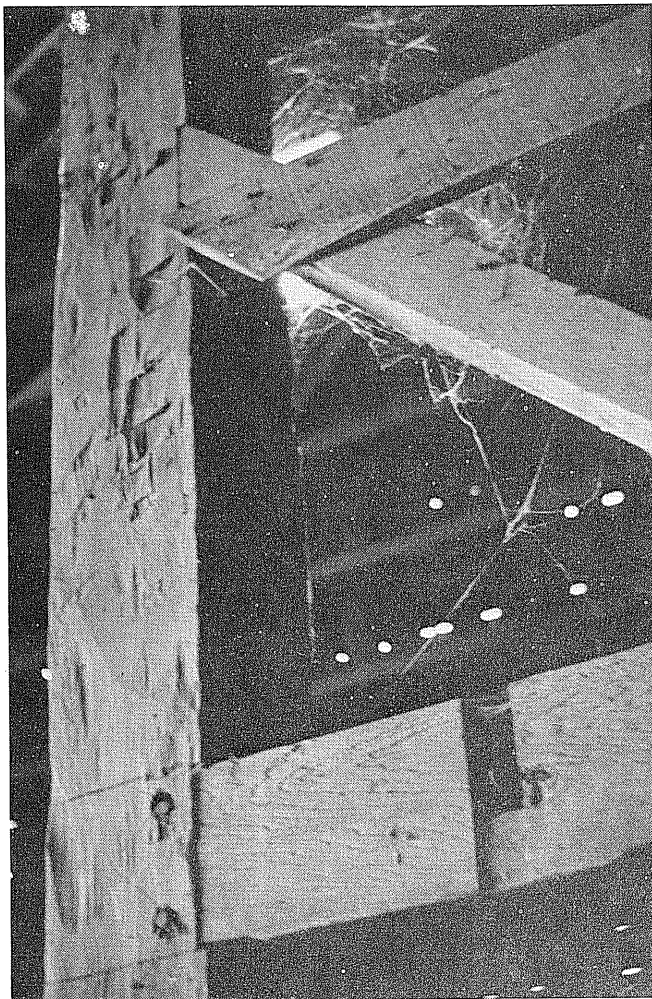


←1831년 9월 요셉 스미스는 가족과 더불어 커틀랜드의 동남쪽 약 48킬로미터에 떨어진 하이람에 있는 존슨 씨의 농가로 이사를 가셨다. 이 집에서 평의회와 대회가 수없이 열렸으며 몇달간 예언자는 이곳에서 생활하셨다. 현재 교리와 성약에 실린 15개의 계시는 여기서 받았다. 지금 이 농가는 일부 복구되었다.





↑ 존슨 씨의 외양간. 새 지붕과 판자벽으로 일부 복원되어 있으며 예언자가 살아계시던 때 지어졌다.



↑ 이 집은 최근에 복구한 시드니 리그돈 부대관장의 저택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멘토 시의 한 교회의 전직 목사였던 리그돈 부대관장은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 개종시키는 역할을 했었다.

← 경목(단단한 목재)에서 베어낸 이 대들보는 나무못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데 존슨 씨의 외양간의 제작 솜씨를 보여 준다.

미대륙에 상륙한 고대인

존 리어

미국 인디안은 성경의
히브리인과 조상이 같을
런지 모름

● 대개 3,500년경 전에 현존하는 미국 인디안족의 조상은 지중해에서 서반구로 건너 왔다.

기원전 531년에는 가나안 땅에서 다른 무리의 사람이 현재 브라질의 연안에 도착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몇해 전만 하여도 진지하게 다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태평양을 탐험 횡단한 콘—티키 뱃목의 주인공인 놀웨이 사람 도르 하이얼 씨가 수십세기 동안 구대륙과 신대륙 간에 교류를 하여 왔으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의 두번째 시도로서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대서양을 향해하므로써 금년 여름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나돌기 시작하고 있다.

하이얼 씨는 지난 5월 그의 갈대 배를 타고 모룩코 사파이 항을 떠나기 전 고대에 이러한 항해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에 관하여는 마사추세즈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교 지중해 연구과 과장인 사이러스 에이치 폴든 교수에 의해 학제지에 조용히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필자가 보고하려고 하는 자료는 바로 이 교수의 논문에 있는 것이다.

계간 논문 발표회지에 실린 기사에서 폴든 교수는 조오지아 주, 베닝에 미육군 기지가 시작한 일을 발표했다. 언더우드 밀이라고 불리우는 이 황폐한 토지에 유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유난히 베닝 기지에서 문관으로 일하던 맨프레드 뱃칼프 씨의 주의를 끌었던 납작한 돌이 있었다. 뱃칼프 씨는 1966년 가을 바베큐 굴을 만드는 임무를 떠고 있었다.

뱃칼프 씨가 사용하려고 선택한 돌은 황갈색의 모래 돌이었다. 굴안벽에 붙이려고 돌을 닦으면서 뱃

칼프 씨는 돌에 이상한 부호가 새겨져 있는 것을 알고 이러한 부호에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단정하여 이 돌을 예전의 예술과 공예에 관한 것을 비장한 컬럼버스 박물관(조오지아 주)에 넘겨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박물관의 교육 및 조사과 관리자 조셉 비이 마한 씨가 뱃칼프 씨로부터 돌을 인수하였는데 마한 씨는 미국 인디안에 대한 고고학과 인류학의 전문가이다. 우연하게도 그는 당시에 유치 인디안족(미국 동남쪽의 인디안)의 문화를 연구하고 있던 중이었다.

유치 인디안은 조오지아 주에 살았으나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1836년 오클라호마 주에 정착하였다. 마한 씨는 이들이 다른 인디안과는 달리 종족이나 언어가 틀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이 남쪽에서 조오지아 주로 왔으며 또한 맨 처음에는 동쪽에서 미국에 도착하였다고 말했다. 여기서 남쪽은 멕시코우만을 의미할 수 있고 동쪽은 대서양 동쪽을 뜻할 수 있다.

또한 유달리 마한 씨의 주목을 끌게한 것은 유치 인디안의 풍습이었다. 그것은 바로 이 종족이 성스런 추수달 15일이 되면 문화의 중심지로 순례를 하는 것이었다. 연 8일간 이들은 하늘로 트인 지붕이나 나뭇 가지와 잎사귀로 가린 오두막 집에서 지내며 축제를 가졌는데 밤새도록 불을 밝혀 놓고 그 주위를 긴 원형으로 늘어선 걸어가는 것이었다. 몇 사람의 부족은 걸으면서 잎사귀로 것이 달린 긴 나뭇가지를 가지고 다녔다.

이러한 축제를 가질 때에는 이들은 나뭇가지를 맹렬히 흔들며 다니고 있었다.

* 존 리어 “미대륙에 상륙한 고대인” 세터데이 리뷰저, 1970년 7월 18일, 18페이지 이후부터 승낙을 받아 게재함. (본 기사는 비물론으로 부터 얻은 흥미 있는 것임.)

여기서 마한 씨는 유치 인디안의 순례와 히브리 인의 초막(“성회” 또는 “수코드”) 축제가 서로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는 유사한 점이 너무 많으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성경의 레위기 제23장에는 8일간의 추수 축제가 성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임시로 잎사귀와 열매와 식물로 가려 놓기만 한 하늘이 내다 보이는 초막에서 지내야 했다. 레위기 23장 37절은 유치 인디안의 축제의 성화와 꼭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성화는 오늘날 유태인이 지키는 초막 축제에서 사라지고는 있으나 세부적으로 관찰해 보면 나뭇가지를 흔들고 원형을 지어 걸어다니는 유치 인디안의 축제의 풍습과 다를 바 없다.

멧칼프 씨가 베닝 기지에 있는 옛방앗간의 유적에서 얻은 돌을 가져 왔을 때 마한 씨는 머리 속에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유치 인디안이 히브리 인과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고 상상해 보자. 그렇다면 멧칼프 씨의 돌의 부호는 이 이상한 인디안 족속이 지중해에서부터 조오지아 주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1968년 봄, 멧칼프 씨는 돌에 대한 연구가 자기에겐 너무나 벅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연구를 브랜다이스에 있는 골든 교수에게 부탁하였다. 골든 교수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수도를 크레테 섬의 크노소스에 두었던 크레테 인이 사용한 필체의 문자와 돌 위에 새겨진 부호와 서로 대조하였다.

이 연구를 끝낸 뒤 골든 교수는 이것과 크레테 인의 문체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외쪽 하변에 있는 쌍도끼는 ^{크레테} ~~크레테~~ 문명을 상기시켜 주는 것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수직으로 그는 작대기 표시의 선은 에에게 인의 문자에서 ‘1’을 표시하던 수직 선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며 한편 작은 동그라미는 ‘100’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세째 줄의 바퀴살이 그려진 동그라미는 태양에 관한 상형문자인듯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1000’이라든지 ‘10,000’ 같은 큰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레테 인의 문자에서는 바퀴살이 네개 그려진 원은 ‘1,000’에 해당하는 것이다. 멧칼프 씨의 돌에 새겨진 것을 보면 7개의 바퀴살이 있는데 만일 이것이 ‘1,000’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10,000’과 같이 더 큰 숫자를 의미하는 듯하다...”

그는 이러한 숫자에서 쌍도끼와 전체의 60분의1을 의미하는 크레테 인의 분수와 금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 줄의 목록이 원문에 있으리라는 인상을 얻었다. 이를 해석한다면 “무게가 약 43그램 정도의 청동으로 된 쌍도끼” 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하였지만 “다만 잠정적인 암시”로서만 이를 발표하였다.

골든 교수는 사전에 유치 인디안의 주요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이것들과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와의 관계를 조사 연구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는 멧칼프 씨의 돌에 대한 언어학적인 확인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에에게 인의 문체와의 관련성만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지난 2월 메뉴스크립트 지에 실린 그의 보고가 출판된 뒤 골든 씨는 체코의 프라그 대학 셈 어학 교수 스타니슬라브 세계르트 씨에게 돌을 보여줄 기회를 가졌는데 세계르트 교수는 이 문체가 에에게 인이 음표—구어 음절을 나타내는 기록 문자의 체제—를 알파벳으로 바꿀 즈음인 주전 2천년 시대의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세계르트 교수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정통적인 언어학자이다. 멧칼프 돌에 관한 그의 특성 표시는 골든 씨가 비교 조사하여 얻은 새로운 발견에 대하여 또 하나의 실증을 제시해 주었다. 이보다 앞서 베일 오노르 씨는 그의 저서 화이트 강의 탐구(프트남, 뉴욕 1964년)에서 크레테 인의 문체와 마야인(중미의 토인)의 문체의 유사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런데 멧칼프 돌과 오노르 씨의 관찰과는 전혀 무관하게 페이스토스(크레테 섬의 고도)원반과 아즈텍 종족의 상형문자 사이에 세번째로 뚜렷한 유사점이 있었다. 이 마지막 유사점에 대하여 골든 씨의 주의를 끌게 하여 준 사람은 바로 놀웨이인 마그누스 그로디스였다.

멕시코 만 연안에 인접한 세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에에게 인의 문체는 주전 약 2천년 전 시대의 중엽에 지중해와 신대륙 사이에 청동기 시대의 대서양 횡단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출수가 있다고 골든 씨는 메뉴스크립트 지에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독자는 고대에 있어 친구 양대륙의 교류가 이상에 대강 설명한 자료에 국한한다고 하는 인상은 가져서는 안된다. 여러 면에서 잇달아 나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한

결같이 고대 미대륙의 문명은 동서
 간에 대양을 횡단하는 접촉을 가짐
 으로써 자극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
 리게 된다. 이 가운데서 지중해와
 의 교류는 특히 창의적인 것이었다.
 서기 300년 전 중미에서 나온 수천
 개의 도자기로 된 조각 입상에 미
 국 인디언의 모양은 하나도 묘사되
 어 있지 않았다……[입상은 모두가]
 극동인이거나 아프리카 흑인이거나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의 민족이
 었으며 특히 썸족의 모습이 많았다
 는 사실을 알렉산더 폰 부테나우
 씨의 발견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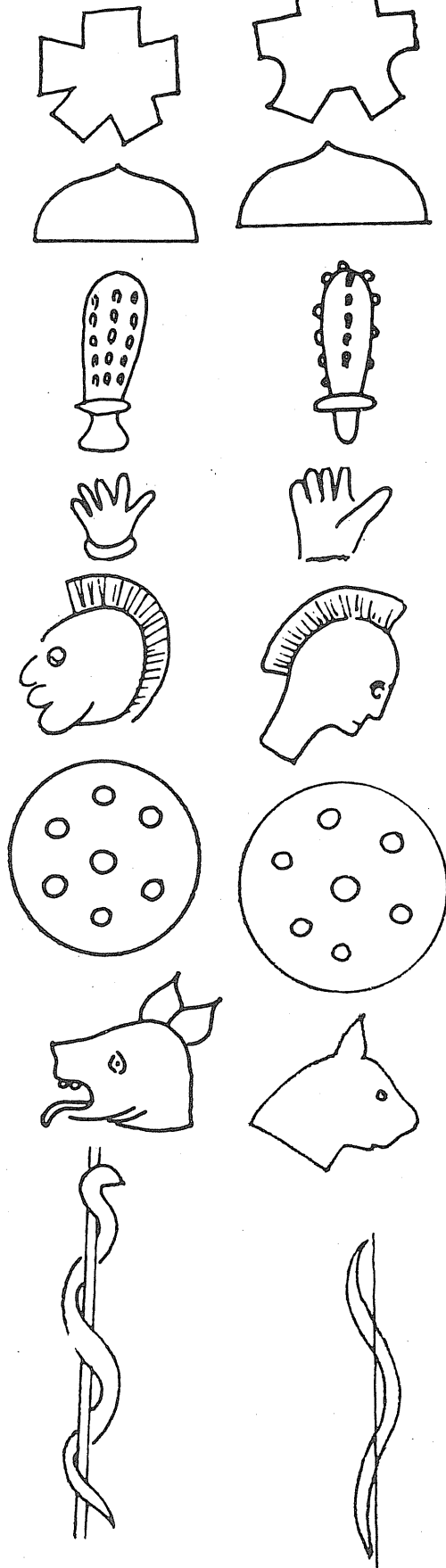
‘다이어로그’ 지에서

골든 씨는 어떤 사람이 1872년 리
 오테자네이로에 있는 인스티투토
 히스토리코에 보내온 가나안 종족
 의 원문의 사본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는데 이 사람은 동봉한 첨부
 서에서 그의 고용인이 파라이바 부
 근 푸소 알토에 있는 자기 농장에서
 조각이 새겨진 돌을 발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브라질에는 파
 라이바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리
 오테자네이로 부근에 있으며 다른
 곳은 브라질이 아프리카를 향해 동
 쪽으로 불쭙 나온 북쪽에서 훨씬 떨
 어진 곳에 있다. 비록 현재 리오에
 사는 법학자 에스타니스라우 베라
 씨에 의해서 파라이바의 남부 지방
 에서 찾고 있기는 하지만 두 장소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이 돌이 다시
 발견된 일은 없다.

마사추세츠 대학 줄스 피커스 교
 수는 1968년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
 지 아니한 1874년도에 전채한 브라
 질 원문을 발견하였다. 피커스 교
 수는 골든 씨에게 1874년도 원본 복
 사에 대한 전조판 사진 복사를 보
 내어 의견을 물었다. 골든 씨는 이
 원문에 1870년대 학자들에게는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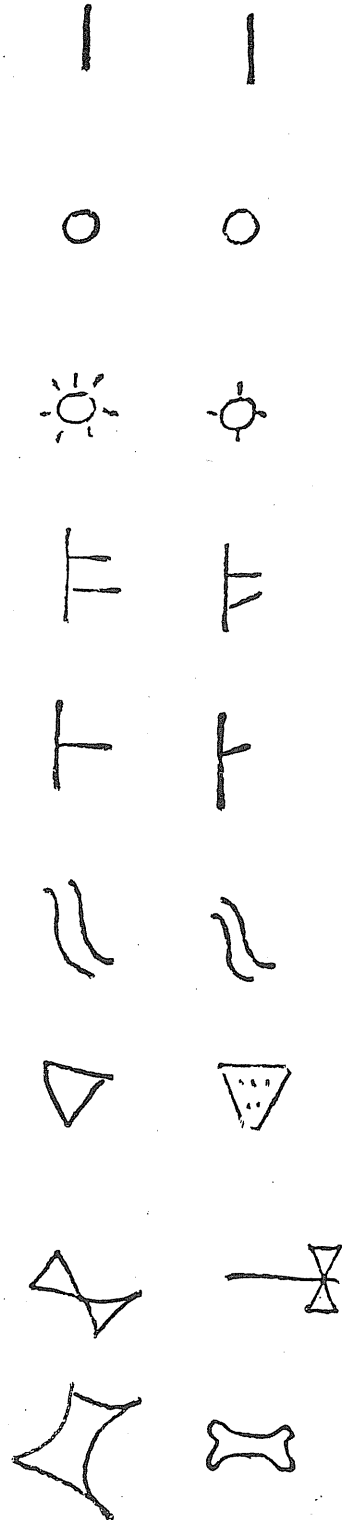
멧칼프 씨 돌에
 새겨진 부호

크레테 인이
 쓴 부호



놀웨이의 마구누스 그로
 디스에 의한 멕시코의 아즈
 텍 종족의 상형문자와 페이
 스토티스 원반에 기록된 크레
 테인의 상형문자와의 비교.

멕시코 크레테



려지지 않았으나 그후 햇빛을 보게 된 자료가 많이 있음을 발견했다. 골든 씨는 이것으로 원문이 진짜라는 증거로 삼고 새겨진 내용이 장례식에 관한 것은 아니나 세 부분으로 된 기념사의 원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였다. 이 원문은 서론이 저자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본론은 기념행사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신의 은총을 기원하며 마치고 있다. 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중상 주의 왕이 다스리는 도시에서 온 시도니아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머나먼 산악지대의 해안에 밀려 왔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히람 왕 재위 19년에 천상의 신과 여신에게 한 젊은이를 제물로 바치고 에시온 게바(에돔의 고도, 아마 지금은 텔 엘 칼리파 마을이라고 확인되고 있음. 터어키 지방)를 떠나 홍해로 배를 타고 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10척의 배로 항해를 하였으며 2년간 아프리카의 주위를 돌며 바다에 있었읍니다. 그뒤 바알(이방의 신)의 손에 의하여 서로 나누어져서 더이상 우리의 일행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 12명, 여자 3명이 이곳 ‘새 해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배들의 지휘자인 내가 피신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의 신과 여신이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골든 씨는 여기에 언급된 히람 왕은 히람 1세(주전 10세기)가 아닌 히람 3세(주전 553—533년)이었다고 말했다. 항해자들이 그의 재위 19년에 고국을 떠났으므로 승선한 해는 주전 534년이었다. 이때로부터 2년이 조금 지난뒤 이 배는 브라질(“새 해안”)에 도착하였는데 바로 이 해가 주전 531년이었던 것

이다.

“따라서 주전 6세기에 한 척의 배가 15명을 싣고 가나안에서 대서양을 횡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골든 씨는 결론을 맺었다.

“바알의 손으로부터”라는 말은 “신의 행동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으며 대양 횡단이 폭풍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골든 씨는 주목했다. 어느 배가 미국으로 항해해야 하는가를 정하기 위해 준비를 뽑았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누구였는가? 골든 씨에 의하면 이 말은 경전상의 히브리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통 명사로서는 ‘상인’이라는 의미이고, 고유 명사로서는 페니키아인, 히브리인, 에돔인, 모압인 등을 포함한 언어의 관계를 맺고 있는 레바논—시리아—팔레스타인의 주민을 가리키고 있다,” 골든 씨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떠한 형에 넣어버리려고 하는 잘못에 대해 경고를 하였다. 페니키아인 모두가 뱃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이들 중에는 직공이나 농부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다. 히브리인은 “이따금 여호와를 숭배하는 나라의 미숙한 수부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 족속만(단, 아셀과 스블론) 뱃사람이라고(창 49:13, 삿 5:17)말해 주고 있다. 히브리 인도 브라질 탐험을 했을런지 알 수 없으나 비문에 새겨진 문자로서는 “아직도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골든 씨는 썼다. 가나안 족속의 언어 사회는 여호와 숭배자와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원문에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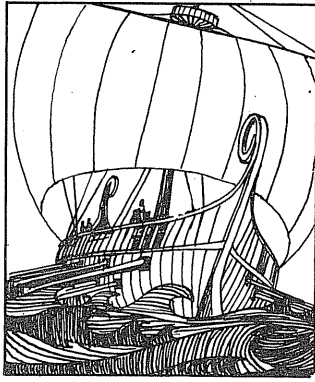
알은 언급하고 있어도 여호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고대 선원들이 가나안 땅에서 미대륙까지 항해하는데 사용한 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비에 싸여 있다.

성경상에는 히브리인이나 이들과 교역을 한 백성들이 원양 항해를 위해서는 언제나 레바논의 목재를 찾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이 많다. 하여간에 도르 하이얼 씨는 우연히든 계획적이든 갈대로 제조한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완강히 믿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하이얼 씨는 에집트의 기사 피라밋 뒤에서 길이 15미터, 폭 4.8미터, 깊이 1.35미터 가량되는 백조 모양의 갈대 배를 제조하였다. 1969년 5월 그는 국적이 다른 7명의 선원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대서양 쪽에 있는 모록코 사파이 항을 출항하였다.

그러나 에집트의 태양신인 ‘라’라고 이름을 지은 이 갈대배는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바도스(서인도 제도외 한 섬, 영령임)까지 일주일간의 항해를 남겨두고 2,700마일의 항해를 끝낸 뒤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이얼 씨는 자기의 이론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계속 확신하였으므로 금년에는 사파이의 총독인 타이브 아마라의 궁중에서 전 보다는 조금 짧은 갈대배 한 척을 제조하여 여름이 끝나기 전 유카탄 반도(멕시코 남동부에 있음)에도 착하리라고 기대하며 5월 17일 유엔기를 달고 한 명의 외국인 승무원과 같이 이 배를 타고 또다시 출항하였다. ○



페니키아 사람들에 의한 말일성도의 새로운 관심

로스 티 크리스첸슨

이 기사는 콜럼버스 이전에 신대륙으로 대양 횡단을 하였다는 새로운 증거가 될 것이다

콜럼버스 이전 구대륙과 신대륙간에 대양 횡단의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실증을 세우기 위해 최근 여러 차례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말일성도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시도는 바로 용맹이 많은 놀웨이 항해인이며 과학자인 도르 하이어달 씨가 “라1호”(1969)와 “라2호”(1970년)라고 명명한 갈대 배를 타고 아프리카의 대서양 해안에 있는 모록코에서부터 남미의 북쪽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바바도스 섬까지 일종의 서사시와 같은 대항해를 한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하이어달 씨가 1947년 콘티키 뗏목으로 항해함으로써 스페인 사람들이 올 무렵 남미의 서쪽 해안을 왕래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 배를 모방하여 만든 배로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로스 티 크리스첸슨 박사, 브리검 영 대학교 고고학 및 인류학 교수. 1968~1969년 사이에 페니키아 문명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오렘 35와 드에서 기초코리반을 가르치고 있다.

보여주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1969년과 1970년의 그의 실험은 지중해 연안에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고대인들이 고대 에집트의 무덤 속 벽화에 그려진 것과 같은 모양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여 미대륙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고대인이 대양 횡단을 하였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을 조사 연구하는 다른 노력이 있음은 또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뉴멕시코의 산타 페 시에서 미주 고고학 협회의 1968년 연차 모임의 특별 주제로 있었던 대양 횡단의 교류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읽을 수 있었던 28가지 논문 목록표의 대부분은 직접 신구 대륙간의 교류는 대서양 또는 태평양 중에서 어느 쪽으로 건너 왔느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에 제시한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배와 뗏목, 옥수수, 완두콩, 호박, 야자수, 고구마, 면화와 박 그리고 병아리와 도자기의 대양 횡단 전래, 빈랜드, 케찰코틀(중앙 아메리카 산의 조류), 확산설(인류학의 학설로 널리 분산된 문화의 유사점

은 역사적인 교류의 증거가 됨)과 독립 발명설 간의 논쟁 등이었다.

이 중 말일성도인 존 엘 소렌슨 박사가 낭독한 논문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졌는데 박사는 제목별로 상통하는 특성을 140가지를 열거하고 이를 21가지의 주요 제목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박사는“...대부분 중부 아메리카(북미의 중앙 북부 지역에서 니카라과까지) 문명은 그 기원을 근동(아라비아, 소아시아, 발칸 등)에 두고 있었다.”고 결론을 맺었다.

현재 나타난 증거에는 콜럼버스 이전에 두 반구간에 있는 교류의 주요 역할을 맡았던 자들은 페니키아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고로 어떤 학자는 페니키아 문명과 고대의 대양 횡단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에 대한 호기심에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말일성도도 성경이나 물몬경의 관점에서 이와같은 전개가 흥미로운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겠다. 실제로 물몬경 속에 나오는 물테크인은 그들의 인종 기원에서 볼 때 대개 페니키아 인이었다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러면 페니키아 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들은 성경과 물몬경의 백성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졌을까? 페니키아 문명은 셈족의 것이었으며 그 언어의 기원은 히브리인의 조상과 동일하였다. 또한 페니키아의 본 영토는 북부 팔레스타인에서 사이프러스 섬 맞은 편 지점에 이르는 지중해의 동쪽 해안을 따라 놓여 있었다. 사실상 이들

은 가나안이라고 알려진 이 지방에서 살았던 백성들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그들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들은 가나안 족속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렇게 일컬어졌던 것이다. 아마도 오늘날 레바논의 백성은 가장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들의 후손일지 모른다. 비록 아랍어를 사용할지라도 서기 7세기에 모슬렘의 정복이 있었기 때문에 레바논 인은 자기들이 진실로 페니키아 인이라고 인식하여 가고 있다.

성경에는 페니키아인에 관한 참조 구절이 많다. 제일 유용한 구절은 열왕기와 역대기와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티르의 히람 왕과 이스라엘의 다윗이나 솔로몬 왕 사이에 유별하게 친밀하였던 것을 상기할 수 있다. 티르는 그 당시 페니키아인의 으뜸가는 왕국이었으며 실제로 티르인과 시돈인(시돈에서 나옴, 피닉스의 다른 중요한 도시)은 페니키아인의 동의어나 다름이 없었다.

최근 윌리엄 에프 앨브라이트 박사는 페니키아인이 지중해 지방에서 행한 탐험과 식민지 개척의 번성 시기는 다윗 왕이 주전 약 990년 블레셋 제국을 멸망시킨 뒤 얼마 되지 않아 시작했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이러므로써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도 해방이 되었다. 하여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중해는 물론 심지어 스페인 서부의 켈션 먼 지점에 이르기까지 페니키아인이 활동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후 앗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이 스라엘의 북쪽 백성을 주전 약 721 년 노예로 만들어 이끌고 갈 때 그는 또 페니키아 인을 정복하였는데 이때로부터 페니키아 인은 다시는 강대한 세력을 갖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들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 얼마 후 그들을 정복했을 때인 주전 572년 에 이르러 비로소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상의 간략한 배경을 가지고 물문경 속에 담겨져 있을 가능성을 고찰하여 보자. 니파이 인의 경전은 고대의 근동에서 세 다른 이주민이 왔다는 것을 작 세히 기술하고 있는 바 이들은 야 벳과 그의 형제, 리하이 그리고 물 레크의 이주민인 것이다. 그러면 이 “물레크인” 또는 물몬이 여기서 말하는 이주민의 후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제이라헤물라 백성”은 누구였을까? (욘 1:14)

원문에는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한 이야기로서 시드기아 왕의 어린 아들인 물레크가 분명히 바벨론인의 노여움으로 인해 피신하였다는 언급만 있을 뿐 아무 해답도 없다. 물레크는 물론 다윗 족속 중의 유대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주민은 누구였을까?

만일 여러분이 왕족 중의 한 왕자에 대한 보호자로서 그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자들이 모두 잡혀 아버지의 목전에서 살해되고 그 후 왕의 눈을 빼어 그의 육신의 죽음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유물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극렬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왕하 25:7과 렘 39:6-7)

그리하여 여러분이 해상으로 피신하기를 원하였다면 누구의 도움을 구하였을까? 그 세대에서 가장 훌륭한 항해자들로서는 누가 있었을까? 페니키아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기록에 남아 있는 역사에서는 최초로 주전 약 660년보다 조금 일찌기 아프리카 대륙의 주위를 항해 하였던 사람은 바로 페니키아인이었다. 이러한 항해는 시드기아 왕의 생애와 에집트 왕 네고 2세의 집정 시에 행해졌다. 6세기 이후 이와 같은 업적은 폴투갈 사람인 항해사 바스코 다 가마가 1498년에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 항로를 개척했을 때가 이르도록 2천년간은 성취하지 못했다.

물레크가 페니키아인 선원들의 도움으로 피신하였다는 것은 물론 하나의 가설이지만* 우리가 물문경에 기록된 주요 수로인 시돈 강의 이름에 관하여 고찰하면 이러한 견해가 근거 있는 사실임이 판명된다. 실제로 시돈 강은 기록상에 언급된 유일한 강이다. 그러면 왜 니파이인은 그들의 주요 수로에다 페니키아 본국의 주요 도시의 이름인 시돈

* 본인은 존 엘 소렌슨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년간에 이와같이 페니키아인이 물레크인이라는 가설에 대한 중요한 생각을 가졌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이에 대한 첫번 발표는 임프르브먼트이라 제60권(1957년 5월) 330-31페이지에 실린 박사의 논문에 나타났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소렌슨 박사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 시절에 고교학 교수인 엠 웰스 제이크먼에게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라 붙였을까? 그 대답은 아마도 니파이 인이 그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몰레크 인이 붙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니파이 인의 기록에서 시돈에 대한 첫번 언급은 모사이야 왕이 주전 약 200년경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산악 지대의 왕국에서 내려와 제이라해플라 도시를 발견한 뒤에 비로소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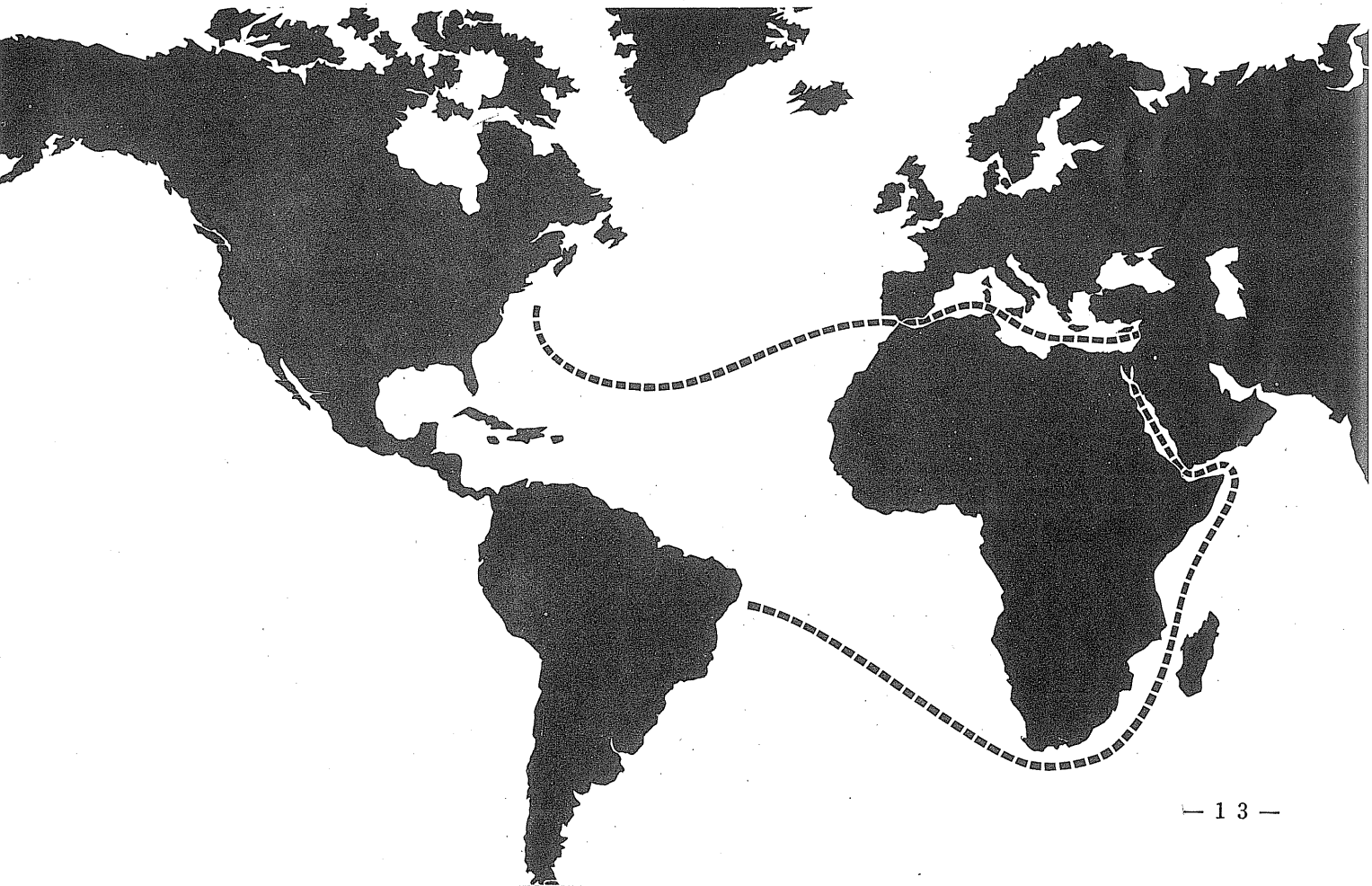
움나이는 새로 발견한 몰레크 인과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몰레크인에게 니파이 인의 언어를 가르치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움 17, 18절) 4세기 동안의 고립으로 아마 히브리어에서 갈라져 나왔을 두 언어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암시가 있으나 차이에 대해

서는 어찌면 본래 몰레크인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실제로 히브리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페니키아어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 그러나 페니키아어는 주전 600년에는 차이를 알 수 있을 만큼 히브리어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후 400년 후, 두 언어가 거의 서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따로 발전했을 것이다.

물몬경의 헤이고드에 관한 기사(엘 63장) 페니키아 인과 가르타고(아프리카 북안의 옛 도읍)에 있는 그의 후손의 역사에서 몇 가지 현저한 유사점을 발견하게 한다. 바다를 개척하려는 헤이고드의 방법은 고대 이스라엘 인에게는 전형적인 것이 아니었으나 페니키아 인에게는 전형적인 것이었으며 페니키아 인

의 조선술과 바다에 대한 활동은 주전 55년경 적어도 헤이고드의 시대까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다는 가능성이 짙다. 물몬경 속에 있는 페니키아 인의 특별한 요소에 관한 흥미로운 유사점과는 전연 상관 없이 페니키아의 선원이 대개 주전 1,000년과 500년 사이 그들의 문화가 번성하던 시대에 신대륙의 어떤 다른 장소에 도착하였으리라는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페니키아 인에 관한 수개의 의미 있는 비문에 나타난 지점을 지도상으로 뉴우잉글랜드에서부터 브라질 사이에 그려넣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서양 해안을 따라 발견된 이러한 문체는 물몬경의 백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듯 하다.

이것은 물론 니파이 인의 경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면에서 다른 여행자의 방문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놀라운 예가 바로 1872년 브라질에서 발견한 파라이바의 원문인 것이다. 이 기념사의 비문은 시돈을 떠나 홍해로 출항한 항해자들이 세계 방향과 같이 아프리카 주위를 돌며 항해하다가 남 대서양에서 동행하던 아홉 척의 배와 분리되었으며, 호아 페소 부근에 있는 남미의 동부 끝에 상륙하였다는 항해에 관하여 페니키아어로 기록하고 있다.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사이러스 에이치 골든 박사가 1968년에 시작한 학구적인 연구의 덕분에 파라이바 원문이 근동에서부터 고대 미대륙까지 실제로 항해한 것에 관하여 현재는 우리들이 그 출발과 도착의 장소와 날자를 지적해 낼 수 있게 하는 명확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출항은 시돈에서 주전 534년에 하였고 상륙은 주전 531년 브라질 해안에 하였다. 물론경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을지라도 리하이의 물페크와 또한 에집트의 네고 왕의 항해가 있었던 때와 똑같은 시기에 이러한 항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겠다. 페니키아 인이나 물론경의 기록의 양자 중에 어느 것보다도 무관한 흥미 있는 발견은 남부 뉴우햄프셔에 있는 노드 살렘 가까운 울창한 숲지대에 위치한 '신비의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의 발견이다. 이 밖에도 뉴우잉글랜드에서 이와 비슷하게 거칠게 돌로 만든 다른 건축이 75개나 또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복잡한 이 폐허의 두드러진 특징은 초엽으로 된 둥근 천정과 "벌집" 지붕인 것이다.

어떤 이는 인디안이 뉴우잉글랜드의 폐허의 유적을 지었다고 말하나 이것들은 인디안의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은 영국계의 초기 뉴우잉글랜드 농부가 건축하였다고 말하지만 비록 이주 농민들이 이것을 후에 마굿간이나 뿌리를 저장하는 창고를 위해 사용하고 주변에 그들의 공예품을 남겨 두었을지라도 이들이 원래 건축자가 아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이상한 유적은 건축 양식에 있어 전혀 영국풍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저자는 신비의 언덕은 바이킹 족을 피신하여 온 일단의 애란 승려들이 건축하였다고 확신했다. 다른 사람은 그 후 승려들이 이곳의 거주자가 되었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건축하지는 않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중에 만족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최근 방사성 동위 원소에 의한 연대 결정은 훌륭한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신비의 언덕은 주전 약 1,000년에 사람이 거주하였던 것 같다. 지금까지의 증거는 서유럽의 청동기 시대의 말엽에 있는 "지석(큰 돌) 문명"과 관련이 있는 이주민들의 대서양 횡단을 입증해 준다.

1970년 7월 18일 세터데이 리뷰지에서 존 리어 씨는 "고대인의 미대륙 상륙. 미주의 인디안 족은 성경의 히브리 인과 조상이 같을지도 모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에서 그는 조오지아의 유치 인디안 족에 관한 조셉 비이 마한 이세의 활약, 브라질에서 나온 페니키아어의 원문에 대한 사이러스 에이치 골든 교수의 연구, 파피루스

갈대배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도르 하이얼달, 그리고 기타 중요한 증거의 본보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몇년전 저자는 이러한 연구에 기초를 둔 긍정적인 결론은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여름 하이얼달 씨가 아직 항해 중에 있을 때 리어 씨는 그의 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현재 과학계에 나돌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 그의 기사에서 그는 이와 같은 학계의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일로 인하여 많은 감명을 받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말일성도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현재 밝혀지고 있는 새로운 증거는 이들을 기쁘게 해준다. 백여년 동안 이들은 이와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왔으나 세상 사람들에게서나 학자에 의해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 콜럼버스 이전에 고대의 동쪽에서부터 대양 횡단이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바야흐로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쩌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많은 발견이 물론경에 언급된 특정한 백성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야벳 인과 리하이 인과 물페크 인이 신대륙에 건너왔다고 하는 말일성도의 신념은 20세기에 있어 처음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의 동향과 이에 대한 학자의 반응에 대하여 일찌기 크게 관심을 가지셨다. ○

젊은이가 오늘날의 문제를 대비하는데 있어 교회가 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관리 감독의 말씀

존 에이치 반덴버그 감독

● 우리의 지도자는 이 세대가 선택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가운데서 소수의 선택된 영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이 지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영들은 말일에 나아와 마지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서 육신을 입고 거하며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여 이를 건설하고 지켜나가도록 6천년 동안 영계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우리의 혈통, 4페이지)

주님께서 왜 선택된 영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나오도록 머물어 있게 하셨는가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현재의 과업은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용기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성취되어야 할 환경이 여러 면에서 악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의 가치나 도덕의 지표

가 거의 상실되고 있으며, 정치가나 교육자나 심지어 교인까지 고대나 현대의 경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삶의 규율에 대한 진실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유한한 이성의 힘에 기초를 둔 좁은 안목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이 급속도로 놀라운 발전을 하여 젊은이를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있으며, 가치와 표준을 결정하는 것처럼 가장 하는 사이비 학문이 일어나 젊은이는 충동을 받아 도덕이나 윤리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는 불법, 폭력, 무정부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파괴를 통해서 세상의 사회적 내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위 “과격 분자”의 유혹을 끊임 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은 인간의 신성한 기원과 지상 생활의 목적과 무덤을 지나서 까지 계속하는 존재의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이 시대를 “인스탄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가 행복을 얻기 위해 바치던 인내와 노력은 놀라울 정도로 힘들이지 아니 하는 화학 요법의 결과에 의존하므로써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활력과 정력을 위해서나 진정과 수면을 위해서 또는 아마도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내면을 관찰하고 영을 보게 할 수 있게 하거나 인간이 느끼는 우주에 있는 어떠한 영적인 힘과 접촉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나 비합법적으로 수백 만명의 사람들이 약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오늘날 정규 교육이 가하는 강조로 인해 젊은이는 종교, 사회 및 정치 활동면에서의 참여와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데 대해서 인생의 초기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그들의 힘과 정력을 생의 문제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방법을 교회내에서 발견할 수가 없

다면 우리 젊은이는 교회 밖에서 그들이 공헌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가능하다면 인생의 초기에 이들은 영적인 면을 충족시켜 주는 교회내의 활동에 참여하여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신권회와 보조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인생의 초기에 개인의 노력과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에서 오는 참된 영성의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후에라야 그들은 자기를 둘러 싸고 있는 육체와 영을 파괴하려는 힘을 능히 대항할 수 있게 강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벅케이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러한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와드의 영적인 상태는 그 와드 청소년의 활동과 비례한다. 감독은 성임을 받아 제사 정원회의 회장이 되며, 그는 젊은 청년과 그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을 신뢰하는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드의 도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모는 가정의 밤과 가정 방문 교육 프로그램 통한 도움과 인도를 받아 극도의 감각주의에 물든 세상의 도덕 및 영적인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는 데 필요한 동기, 충성, 신념을 자녀의 생활 속에 불어 넣어 줄 개인과의 관계와 가정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권 개인 달성 프로그램과 젊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모든 젊은이에게 개인의 목표를 설정할 기회를 줍니다. 개인에게 부과된 책임을 수행할 때 부모 또는 교회 지도자와의 보다 원만한 의사 소통은 물론 강력한 개성의 소유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관리 감독단이 교회 소년단 위원회로 임명됨으로써 앞으로의 소년단 활동도, 아론 신권의 활동도, 아론 신권의 활동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보다 효과적인 관계 수립에 들어갈 것이며 신권회 또는 소년단 기구에 있어서 성인의 지도력을 한층 강하게 해 줄 것입니다.

세미나리와 종교 학원을 통하여 매일 종교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의 수는 약 140,000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매일 다른 사람과 접촉을 가지며 함께 공부하고 배운 경전의 가르침을 활용할 줄 알게 되는 이들 학생은,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유혹과 대항할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청소년의 참여와 지도력 향상을 위하여 마련한 도구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감독의 청소년 협의회를 들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지는 주요 책임은, 아론 신권과 보조 조직의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젊은이에게 각 지역에 알맞는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제언과 방편

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를 최대한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청소년 협의회를 통하여 젊은이의 활력을 장차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필요한 신앙과 간증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감독의 청소년 협의회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한 예는 최근 솔트레이크 시 근처에서 개최한 “선한 사마리아인” 계획의 성공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른 종파의 예배당 건축에 드는 비용을 만들기 위한 모금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대표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계획을 세워 이를 수행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증명한 계획과 기회에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였고 막상 일이 끝났을 때 도움을 베푼 사람들에게는 물론, 같이 일한 사람들 사이에 생긴 두터운 사랑과 이해에 놀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웃이 필요로 하는 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 주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이상을 쫓고 있으며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신권과 보조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봉사와 희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사탄의 농간을 막아 낼 방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

정말로 저를 사랑하셨다면

사랑하는 집에게

지난 밤 당신은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을 증명해” 달라고 그렇게도 강력하고, 열렬히 주장하셨습니다. 당신의 설득력도 강하셨지만 언제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당신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기를 바라는 저로서 당신을 거부하기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당신의 설득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였다면 지금쯤 저는 제 자신을 경멸하며 당신을 미워하며 닳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밤을 거의 새우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순결이란 말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졌을 때의 실망과 자기 혐오는 전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경전 구절이 제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것처럼 깊은 의미를 던져 준 적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구절은 “나 주 하나님은 여인의 순결을 기뻐”하신다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야콥서 2:28) 오늘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구절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한밤중에 일어나 물몬경을 열어 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물몬이 아들 모로나이에게 쓴 구절을 읽었습니다. 니파이 병사들이 레이맨 처녀에게 자행한 잔인스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낀 슬픔과 무서움이 어땠던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많은 레이맨 인의 딸들을 사로잡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고귀한 순결과 정조를 유린한 후에”(모로나이서 9:9)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고귀한 순결과 정조를 유린”하였다는 물몬의 이야기는 오늘 저의 마음 속에 새롭게 새겨졌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것을 저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말로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새로 산 스포츠 카를 것처럼 자랑하고 계시죠. 만일에 다른 여자가 자기에 대한 애정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차를 요구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녀가 농담을 하고 있겠지 정도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좀 들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차는 노력만 하면 일년도 안 걸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의 정결이란 선물을 당신에게 드렸다고 하면 저는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결 또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잠언 31:10)라고 적었습니다. 만일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고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은 저를 완전히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당신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짐, 저는 당신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밤, 당신은 저의 순결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의 참다운 행복을 파괴하려 하셨습니다. 짧은 순간에 그칠, 당신 자신만을 위한 쾌락과 흥분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말은 더없는 조롱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필자의 이름은 가명임.



악에 관한 문제

윌리엄 이 베틀

● 몇달 전 저는 암으로 사망한 친한 친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으며 이를 지켜 보던 저는 심심한 애도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가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셉 시주 박사가 이와 비슷한 경우를 이야기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격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어린 소녀 때문에 거의 미쳐버린 부모와 함께 그 소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소

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제의했오. 그리고 벌써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사랑의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를 맡깁시다라고 말했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해 놓은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나는 개 한 마리를 그렇게 대접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오.”(생활을 값 있게 만들자 112페이지) 요즈음 많은 부모들은 미 국방성으로부터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됨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라고 시작되는 메시지를 받은 가족이 전쟁터에서 한 자녀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연으로 인한 많은 참사가 지구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진으로 많은 인명을 빼앗기고 또 다쳤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40-60명의 승무원을 실은 잠수함이 지중해 가운데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분이 전쟁이 계속되도록 방임하시는가, 질병으로 죽어 가고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놓아 두시는가, 그분이 큰 대학교의 학생이 총을 들고 답쪽대기로 올라가 지나가는 학생들을 쏘도록 놓아 두시는가, 하나님은 계시건가, 계시다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러한 일에 대하여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하신 분이 가?”

윌리엄 이. 베틀 박사는 교회 세미나 및 종교학원 책임자로 오랫동안 봉사했으며 양성을 위해 일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법률에 대한 훈련과 생애를 종교교육 증진에 바친 분이다. 교회 교리와 역사에 관한 기사와 서적도 많이 저술했다.

이러한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 그 시기가 빠르거나 늦거나의 차이는 있더라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 볼 만한 의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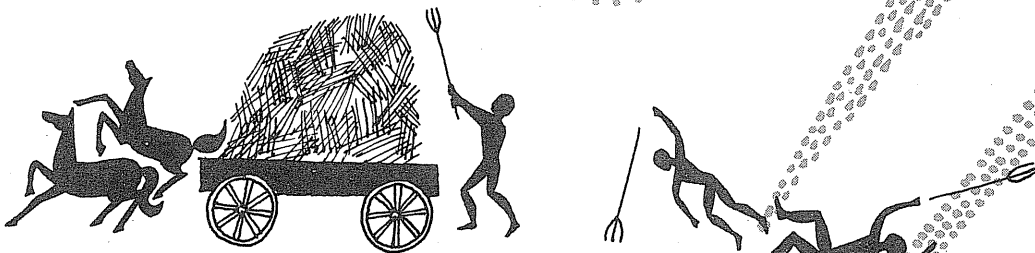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악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갖고 있는 잘못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와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오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자라고 생각하며 그분은 보편자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이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표현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작가였던 비 에이치 로버트 장로님께서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산도 없는 곳에 계곡을 만드실 수 있으시다는 면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능력자 아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어느

선교사가 말한 바와같이 “그분은 한 순간에 열살 먹은 망아지를 만드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법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도움없이 그분이 위대하게 만드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능력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은 인간 개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일생 동안에 배울 것을 한꺼번에 인간에게 쏟아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 일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전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들을 그리고 은하계들을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 따르게 되는 영광과 그 안에 거할 인간의 불멸성을 그리고 새 왕국들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말할

때 그분은 어느 곳이라도 늘 계시는 분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분은 단지 영적으로 그리고 영향력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육체를 가진 몸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법에 의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은 악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간과 자연법과의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 의한 지진은 대해의 한복판에서 많이





일어나 큰 해일을 일으켜 수천 마일 밖에 까지 번져 해안 지방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재산은 파괴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몇년 전에 하와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벼락이 가끔 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 칩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사람과 자동차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적당하게 옷을 입고 또 거처를 마련하지 않으면 동사하게 만듭니다. 질병이 때로는 인간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헤매이게 하거나 생명까지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때로는 악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법칙으로 인한 경험에 의하여 우리는 위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목화 바구미가 미국의 목화 농작물을 휩쓸었을 때 잠시 동안은 미국에서의 목화 산업이 끝장나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악이 인간으로 하여금 목화 바구미와 싸우는 방법을 대학교와 연구실에서 발견해 내도록 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결국 이제는 그전보

다 훨씬 좋은 목화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를 맹타했던 해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지난번에 해일이 하와이를 덮쳤을 때는 한 사람의 희생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러한 교훈이 없이는 발전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 만약 인간이 그와같은 자연의 위력에 죽음을 당하여 버리기만 한다면 그러한 자연의 힘에 의하여 얻은 경험은 별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영위해야 할 유일한 삶이라면 그 악에 관한 문제의 해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악입니다. 다니엘 디포¹의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에 의하면 크루소는 자기가 거하는 작은 섬에 있으면서 그가 인간의 발자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공포라고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공포, 많은 고통, 많은 슬픔은 인간의 잔인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와 다른 세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세상을 조성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한

1. 디포, 다니엘 : 영국의 언론가, 소설가. 1660 -1731

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어떠한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당신은 법칙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유성을 창조하겠습니까? 법칙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해가 하루는 뜨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며 한 달 동안 안뜨거나 또는 돌과 돌을 더하여 넷이 안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어떠한 세계가 되겠습니까?

진보는 법칙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법의 세계는 과학자들이 별의 밝기를 예언하고 로켓으로 달까지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예언할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발전과 진보는 이 세상이 법칙의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것을 방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바람이 폐를 줄 때가 있다고 하여 이를 멈추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피크닉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비를 오지 않게 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의 힘이나 기후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계속하여 자연의 힘을 변경시키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만일 자신이 법에 따라 일하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경의 예언자는 상대의 법²을, 쓴 것을 맛보지 않으면 단맛을 알 수 없고, 악을 모르고는 선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으며, 병들어 아픔을 맛보지 않고는 건강의

2. 니파이2서 2:11, 15절 참조

기쁨을 알 수 없으며, 죽음의 고통을 모른다면 영생의 기쁨을 알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배울 수 있는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화를 당할 때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 앞에는 아무것도 첨가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정에 슬퍼하여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계실 때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서 그분은 주인의 종들이 밀밭에 나가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밀이 싹이 나오자 풀과 가라지가 그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종들이 주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어 보았더니 그 주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마태 13:28 : 30) 아닙니다. 들판에서 벼락을 맞은 사람이 정말로 벼락을 맞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자를 멸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벼락으로 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바로 쳐 넘어 쓰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가 의로운 자와 함께 살도록 놓아 두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 주시지만 추수의 날에는 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 밑에서 점심을 먹다가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경우를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그들의 질문은 “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13 : 3) 그리고 그들은 또 한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신전 교외에서 모여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반역을 꾀하는 줄로 생각하고 칼로 내려치고 목을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누가 13 : 2-3)

세계 제이차 대전중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다면 죽지 않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약속을 해준 사람들이 시온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대관장단에서는 솔트레이크 신전 회의실에서 특별한 모임을 갖고 이 문제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보좌로 계시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께서 그 메시지를 온 교회 사람들에게 읽어 주셨는데, 그 속에서 대관장단은 전쟁의 경우 유탄이나 산탄에 맞아 죽는 사람은 악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 뿐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대륙의 위대한 장군인 모로나이가 통치자 페이호렌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된 엘마서 60장을 읽고 또 읽어 보아야 합니다. 그가 받은 편지에서

백성들의 옳치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수많은 형제들이 저들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이 이와같이 생각했을 진대 헛된 것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칼에 맞아 쓰러진 자가 많음에, 보라 그 형벌이 그대들에게 내려지리라.” “이는 주께서 공의와 심판을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려 의로운 자들의 죽음을 허가하신 것이라...”(엘마 60 : 12) 여기에 예언자며 장군이며 또한 현실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그는 중요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즉 “의로운 자들이 살륙 당하였다 하여 하나님께 잃어버린 백성이 된 것이라 여기지 말라. 보라 저들은 주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리라.”(엘마 60 : 13)

저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금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악의 세상에서 죽은 의로운 자들이 영광 중에 받아 들여지리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슬퍼합니다.

우리중에 그 누구라도 총알이 튀어 나가는 것이나 해일이 일어나게 되는 법을 말소시켜 버리는 하나님을 갖고 계십니까? 확고한 법이 없는 세상은 의미없는 세상으로 되어 버릴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이 서로 싸움하는 것을 방해할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사탄의 원래 계획은 인간이 악을 행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계획에 따르면 인간에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빼앗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것을 빼앗아 가버릴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가 무엇이던 즐겁게 하려고 하는 자유를 서로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관하여 가장 큰 시험을 받으신 때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박혀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마태 27 : 46)라고 외칠 때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셔야 했는데 그 이유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을 행할 때마다 간섭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에 책임을 지셔야 하고 따라서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엘마는 그의 선교사 동반자인 엠올레크와 같이 어떤 곳에서 몇사람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 화형주에 묶어 놓고 그 주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엘마와 엠올레크를 묶어 개종자들을 화형시키는 것을 목격하게 하려고 그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엠올레크는 엘마에게 외쳐 말하기를 “어찌 이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으리이까?” 우리의 손을 뻗쳐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꽃 속에서 저들을 구하도록 하소

서 하였으나

“엘마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내게 손을 뻗치지 말라 하였으니……”

엘마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개종자들을 자유의 몸으로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는 주께서 저들을 영광 중에 맞으시려 함이로라. 주께서 이 일을 이렇게 버려두신 것 곧 이 백성들의 광곽한 마음대로 사람들을 불태우도록 버려두신 것은 진노와 공의의 심판으로 이들을 치시겠음이라. 무죄한 자들의 피가 끝남에 저들 앞에 힘차게 저들의 죄를 고하여 외치리라.”(엘마 14 : 10—11)

만일 당신이 인간의 행위에 끊임없이 간섭한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오는 심판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심판 때에 공의의 날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아마 교리와 성약 121장과 122장이 주는 영감을 포착하곤 그곳에 나오는 사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과 그 외의 몇사람들이 미주리의 리버티 제일 감옥에서 약 4—5명 되는 방에 갇혀 있었었습니다.

그방은 양쪽편에 약 5센티 정도되는 아주 작은 창문이 단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난로는 없었습니다. 밤에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고 일어 죽지 않으려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얼마 지난후 누덕누덕한 담요 두 서너장을 그들에게 던져 주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란 더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간수로부터 들어오는 파괴되어 버린 집 그리고 가축 또는 부인들의 치욕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언제까지 당신의 손이 가만히 계시며 영원한 하늘에서 당신의 눈 곧 당신의 깨끗하신 눈이 당신의 백성의 피해를 보시기만 하시나이까……”(교성 121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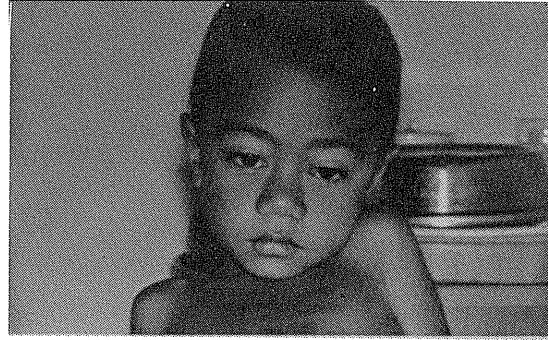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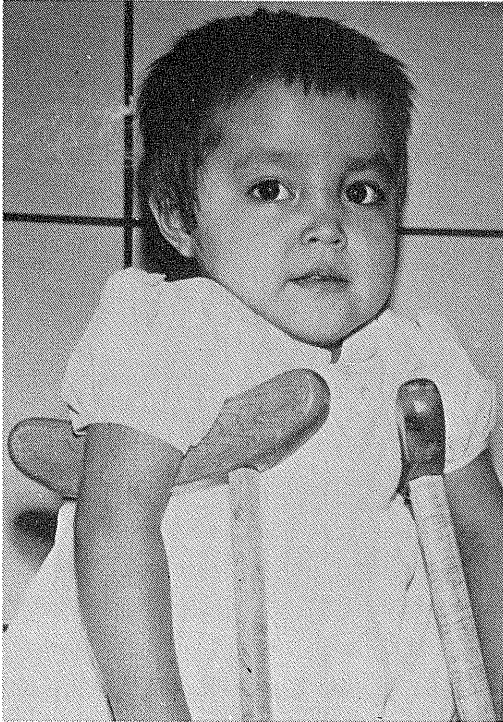
때때로 우리 영이 받는 고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외치게 하고 싶어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우리가 이 고통을 참아야만 합니까?” 예언자께서는 주님의 대답을 얻으셨습니다 “나의 아들이 평안할지어다. 네 끈고는 잠시 동안이니, 너는 아직 육과 같지는 아니하니, 네 친구는 너와 다투거나 네게 죄를 지우지도 아니하느니라……”(교성 121 : 7, 10)

그런다음 주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성 122 : 8)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교성 122 : 7)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팔목할 만한 철학을 발견합니다. 그 날 이후로 예언자 요셉은 결코 다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같이 우리도 이렇게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전 15 : 19)

복음은 우리에게 생애 가운데 선과 악을 다 맛볼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또 유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철학을 제시해 줍니다. 이 얼마나 복된 철학이며 또한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

엘라 메이는 큰 트럭을 보지 못했다.



페시리는 두렵고 슬퍼했다.

엔젤과 그의 어머니는 이제 옷을 수 있게 되었다.



발전하고 있는 초등협회 어린이 병원

베넬 더블류 베렛
부 편집인

● “초등협회 어린이 병원은 미국 서부에서 오랫동안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제 이 병원은 방방곡곡에 있는 수천명의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손길을 뻗치면서 범세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만 하게 되었다.”

연사는 관리 감독단의 로버트 엘. 심프슨 감독이었다. 병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는 자신이 표현하는 바와같이 “어린이들의 의료 봉사를 위한 유일한 안식처”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들의 목적과 목표가 알려질 때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고 극적인 발

전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협조의 기회를 얻게 됨을 환영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초등협회 회장이고 이 병원 이사회 부의장인 리번 더블류. 팜레이 자매는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병원은 진정으로 수백만 사람들의 병원입니다. 이것은 이 진물을 짓는데 도와 주시고 유지하는데 도와 주시는 분들의 사랑과 봉사와 신앙의 상징입니다.”

1969년 10월 초등협회 어린이 병원 육성 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필요한 발전과 확장 기금으로 천만불을 모금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레위스 엠. 존스가 의장이다. 이 위원회

의 관리자는 타이어 디(터크) 이반스이다. 이 위대한 꿈을 실현하여야 겠다는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열의와 신념이 넘쳐 흘렀다. “우리의 계획이 거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구와 필요성을 능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1959년 우리가 받아들인 총수는 겨우 1,000명을 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1969년에는 거의 8,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1959년에는 겨우 588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이곳에서 5,783명을 수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병원의 의사진으로 각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의사들이 250명이 넘는다는 사

실을 알고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육성 자금의 용도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늘이기 위하여 영속적인 기반을 갖는 수입을 얻게하며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것 이상으로 환자들에게 재정적인 원조를 주며 기존 사업을 팽창시키며 새로운 중요한 사업을 이르키며 특히 현대 기구를 구입하고 건물 설계에 필요한 재정 조달 등이다.

인종이나 종교 혹은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 이 많지만 지난 해에는 27개 주의 젊은이 와 다른 나라에서도 왔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령은 유아부터 18세 까지이다.

병원의 사업은 직원이나 기부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정신 건강에 관한 사업이다. 폴 엘. 화이트헤드 박사가 정신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500여 가족을 포함한 20,000명이 넘는 외래 환자가 방문했다. 화이트헤드 박사는 젊고 유능하며 자기가 맡은 분야에 헌신적인 사람이다. 그는 “이 일 보다 더 보람 있고 만족스러운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약 20퍼센트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0퍼센트는 중환이고 약 1퍼센트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한 젊은이들 중의 85퍼센트가 뚜렷한 진전을 보여 행복해지고 또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

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예를 몇가지 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화이트헤드 박사는 말을 계속 한다. “14살 먹은 소년 이 크리스마스 날에 감사의 기도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치우는 것을 보고 갑자기 눈이 안보이게 되었습니다. 정신병학적인 검사 결과 그 장식이 그 소년에게 일어난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일어났던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려는 결심을 하게 되면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되 그 소년은 잃었을 때와 같이 잡자기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소년단에서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12살 난 대단히 침울한 소녀가 몸무게가 45 파운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소녀 역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비탄에 잠겨 있으면서 그와 함께 있고 싶어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의 치료 계획에 따라 삼개월간 정신병학적인 치료를 받아 줄었던 몸무게를 다시 얻고 학교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외래환자로 9개월을 더 치료 받았고 이제는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반항적이고 해로운 일만하여 학교에서 쫓겨난 12살 먹은 소년 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은 늘 모순되는 것이었고 그가 화를 내는 가장 큰 대상은 아버지였고 또 가정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일년동안 매일 정신의학적 치료를 하고 부모들과 상담한 결과 다시 정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었고 그의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는 일은 끝이 없다. 엘라 메이는 수줍음을 잘 타는 두살난 나바조 소녀였는데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트럭에 치였다. 처음 이곳에 온 그는 놀랐고 또 외로웠다. 그러나 다정한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곧 그 아이와 숨박꼭질을 하며 놀아 주었고 그가 아기 침대 밑에서 버팀목과 버팀대를 잡고 완전히 일어설 수 있었을 때 그의 입에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웃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칠리에서 온 4살먹은 소년 이 있었다. 그는 심장 수술을 하지 않고는 몇 주일밖에 살수 없는 아이였다. 출혈 위체양, 등의 병발증이 의사의 지대한 관심사였고 그의 간호를 맡은 간호원들의 책임을 무겁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엔젤은 칠리의 아름다운 산에서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웃음을 머금고 놀고 있다.

아프리카의 오프 볼타 공화국에 있는 한 아버지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 편지를 보냈다. “대관장님 저의 소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귀여운 아들 디테어가 심한 화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그의 왼팔은 몸에 달라붙어 그 소년은 이 손을 들 수가 없었다. 대양을 초월한 호의에 의하여 디테어는 쏘트레이크 시로 날아오게 되었다. 정형수술을 받고 따뜻한 간호를 받은 그 소년은 자기의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담당 의사

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디테어는 이곳에 온 이후 대단히 좋아졌고 우리도 그를 무척 아꼈다. 모든 직원들이 디테어를 마음 속으로 아끼었다. 그는 이곳에서 병원 학교를 다니고



디테어는 팔을 펴지 못했다

있으며 영어도 꽤 잘한다. 그를 고향으로 돌려 보내야 하더니 완쾌되어서 기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다.”

아프리카로부터 병원으로 편지가 날아 왔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 “우리 디테어가 9월 23일 도착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왼쪽 팔이 완전히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힘차게 그 팔을 하늘 높이 쳐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디테어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의 형제와 자매들은 한꺼번에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뛰었으며 학교 친구들은 미국 사람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와같은 수백가지도 넘는 이야기는 지면이 허락치 않아 다 쓰지 못하나 마지막으로 한가지 경우만 더 이야기하기로 한다. 페시리는 무척 불행한 작은 소년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나이 3살 반에 홀로 통가에 있는 집을 떠나와야 했었던 것이다. 그는 간호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간호원들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다. 곧 그는 간호원들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친절에 응답할 수 있었다.

페시리는 위장 결함으로 하복부가 굉장히 크게 팽창되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는 여러 시간 수술을 받았고 그동안 의사들은 결함을 제거하고 조직을 정상적으로 옮겨 놓았다. 현재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통가에서 페시리가 돌아 온다는 말 전해지자 거의 온 마을이 다 그들 사이에 구구했던 추측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행장으로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페시리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 올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돌아 온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헛소문이라고 우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떠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다 나왔거나 썩 좋아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 의사는 무엇이던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찌 되었거나 페시리는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와 똑 같이 정상적이고 또 행복해 하면서 비행기를 내렸다. 의심하던

사람이나 믿던 사람이나 모두 막대기처럼 우뚝 서 있을 뿐이었고 그의 부모는 넘쳐 흐르는 기쁨의 눈물로 말을 할 수 없었다.

초등협회 어린이 병원의 의사, 간호원, 직원들은 모두 봉사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책임 맡은 바 그 이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어린 아이와 주고 받은 정을 끊을 수 없어 양자로 삼은 사람들이 많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한 치과 의사는 병원 밖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곳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면서 보수를 얼마나 받으니까?”라고 질문을 받았다. 그 의사는 눈을 들어 몇 어린 아이들이 노는 창밖을 내다 보다가 그 유리에 코를 눌러 평평하게 하고는 싱긋 웃으며 그에게 고개를 흔들었다 “저것이 나의 보수입니다. 저것이 한 인간에게 필요한 보수의 전부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이 병원은 초등협회가 말일성도 교회 병원에 어린 아이를 몇명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래 계속 봉사하여 왔다. 복신전로에 있는 요양소가 1922년 문을 열어 1952년 현재 시설을 헌납하기 전까지 봉사하여 왔다. 1966년에 증축이 완성되었다.

이제 초등협회 어린이 병원은 그 기본 계획을 펼쳐 나감에 있어 제한된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피로움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보아야 할 짐을 져 나아가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 병원은 그 영향력이 미치는 세상 곳곳에 의학적이며 교육적인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

네 단 계

선교부장 서 현보



●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유명한 소설 “두 도시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세상에 알맞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나쁜 때입니다.

이성의 시대, 어리석음의 시대입니다.

신념의 시대, 의혹의 시대입니다.

빛의 계절, 암흑의 계절입니다.

희망의 봄, 절망의 겨울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 것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곧장 하늘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곧장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적극적인 좋은 것과 부정적인 나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들은 적극적인 면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권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를 수행할 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뜻을 다 하게 하는 인도와 영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경 시대에는 모사이야의 네 아들과 엘마는 좋은 행실을 하기 위한, 그들이 교리를 박해하면서 저지른 악을 보상하기 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네 단계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적극적인 면을 추구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도 같은 네 단계가 적용된다고 믿는 바입니다.

첫째 단계는 “개인의 합당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문제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합니까? 실수하고는 회개합니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합당성에 대하여 항상 검토하도록 합시다.

둘째 단계는 “송사에의 의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복음에 감사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살며 복음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을 때 같은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친구, 친척, 그밖의 사람을 찾아 선교사와의 복음 토론을 갖게 하는 개인적인

면에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부, 지부를 강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매력을 갖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겠다는 소망과 이를 태도와 행동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사이야가 말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여야 하겠습니까. “만인 중에 하나라도 멸망됨을 참아내지 못할 괴로운 일이요, 사람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이 몸서리를 치게 하는지라, 저들은 만인에게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였으니,” (모 28 : 30) 이렇게 되었을 때 봉사하겠다는 의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자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면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권장하기 위한 세번째 단계는 “경전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경전—교회의 표준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수가 연장과 이의 사용법을 알아야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도구를 알아야 하겠습니까. 엘마는 그들이 경전을 열심히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노라고 말했습니다. (엘 17 : 20) 칠십인 정원회의 에스 델위스 영 회장은 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을 읽을 때 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물론경, 성경, 교리와 성약을 얼마나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넷째 단계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생각과 노력을 인도하고 지시하는 분과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교통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는 영을 받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안내와 지시가 필요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하여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와 금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의 문을 열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또는 지부의 회원으로서 위에 말한 네 원리가 일상 생활—개인적인 합당함, 봉사에의 의지, 경전 지식, 기도와 금식—에 얼마나 잘 동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이 교회와 선교부에 보여주신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행복의 그날까지... 견디라

리차드 엘 이반스

● 버질은 짧고 간명하게 “행복의 그날까지 참고 자신을 지키라”¹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에 막혀 있는 것에 대항하지 못하고서 어려움과 실망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또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참을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용기와 강함과 환경이 주기를 그리며 한때는 높아 졌다가 다시 낮아지며 순환하듯 왔다가는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해졌을 때 참아야 합니다. 즉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무거운 짐이 내리워 질 때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만일 불행이 처음 닥쳐 왔을 때와 똑같은 위력을 계속 발휘한다면 그 누구도 그 재난을 견딜 수 없다...”²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최후의 통첩을 자주 받습니다. 이제 단 일분도 더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어. 여기서 빠져 나가고만 싶어.” 그러나 이러한 때는 과중한 짐을 지게 될 때 타격을 피하게 해 주는 회로 차단기나 퓨우즈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취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완전하게 맞춰 넣은 안전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영, 육체, 인간의 정신으로 된 탄력성 있는 영혼임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가끔 상상하는 것 이상의 딱 짜여져 있는 강함이 있습니다. 한때는 할 수 없다고, 살아갈 수 없다고, 또는 수행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스스로 어떻게 하여서든지 해나가고 참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옷을 입히고 새로 정리를 하고 때로는 순수하게 태도와 가치관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는 내재하는 강함, 참을성, 그리고 숨겨져 있는 자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 진지한 것, 삶은 정직한 것”³이라고 시인이 읊은 삶,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쳐 오고 또 그것에 적응해 나가야 할 삶이란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단념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진지하고 심각하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계속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난을 못 참다가 오히려 큰 난을 당한다”라는 옛말은 의미 심장한 말입니다. 이 교훈은 휴식하고 재평가하고 희망을 갖고 신앙을 가지며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강함을 얻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살론의 말을 기억하라고 일러줍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불행을 한 곳에 다 모아 두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각자의 것을...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것이다...”⁴ “행복의 그날까지 참고 자신을 지키라.” ○

1. 버질, 풀리도메(이테리제 영국인 역사가, 성적자 1475-1555)

2. 세네카, 루시우스 아베이우스(로마의 철학자, 정치가 4B.C. -65A.D.) 윌리·수필집:정신의 평정.

3.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미국 시인 807-1882) 삶의 찬가.

4. 살론-아테네의 법률가, 시인 638-558 B.C.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론 테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